논어 6편 옹야 28장 · 원문·풀이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眾，何如？可謂仁乎？」子曰：「何事於仁，必也聖乎？堯舜其猶病諸！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能近取譬，可謂仁之方也已。」

독음 · 자공왈 여유박시어민 이능제중 하여 가위인호 자왈 하사어인 필야성호 요순기유병저 부인자 기욕립이립인 기욕달이달인 능근취비 가위인지방야이

쉬운 풀이(요약) ·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렵게 여길 일이다. 인의 실천은 자신이 서고 통하고 싶듯 남도 서고 통하게 돕는 데서 시작한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貢 바칠 공 공 / 曰 가로 왈 / 如 같을 여 여

有 있을 유 / 博 넓을 박 박 / 施 베풀 시 시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民 백성 민 민 / 而 말이을 이 / 能 능할 능 능 / 濟 나루 제 제

眾 衆의 本字 중 / 何 어찌 하 하 / 可 옳을 가 가 / 謂 고할 위 위

仁 어질 인 인 / 乎 어조사 호 / 事 일 사 사 / 必 반드시 필 필

也 어조사 야 / 聖 성인 성 성 / 堯 높을 요 요 / 舜 순임금 순 순

其 그 기 /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 病 병 병 병 / 諸 모든 제 제

夫 지아비 부 부 / 者 놈 자 / 己 자기 기 기 / 欲 욕심낼 욕 욕

立 설 립 립 / 人 사람 인 / 達 통달할 달 달 / 近 가까울 근 근

取 거둘 취 취 / 譬 비유할 비 비 / 之 갈 지 / 方 모 방

已 이미 이 이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